



‘단단한 과육 · 달콤한 맛’

장성 차돌복숭아 본격 출하

고품질 복숭아 생산…시식회·직거래행사 이어져



단단한 과육과 달콤하고 맛이 일품인 장성 차돌복숭아가 본격 출하 된다.

장성 복숭아의 주산지인 진원면과 남면에서 직거래 행사를 통해 소비자를 찾아간다. 우선 남면농협도 15일부터 8월 20일 토론푸드직매장에서 차돌복숭아 코너를 만들어 판매에 나선다. 진원농협은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나로마트에서 불태산 차돌복숭아 직거래 행사를 시작 한다.

또 26일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원농협이 불태산 차돌복숭아 국회 판촉행사를 열 예정이다. 올해로 4 번째 열리는 국회 판촉 행사는 뛰어

난 상품성으로 매년 완판 기록을 세우고 추가 주문이 이어질 호응을 얻어 왔다.

장성군은 또한 본격 출하에 앞두고 지난 20일 진원농협 유통센터에서 서울과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도매시장 경매사와 중도매인 등을 상대로 품평회를 열고 품질 평가를 갖기도 했다. 한 경매사는 “지난해 차돌복숭아가 반응이 아주 좋아 올해도 수요가 많을 것”이라면서 소비자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숭아는 장성군 대표적인 여름 특산물이다. 124농가가 51ha의 가수원에서 연간 652t의 복숭아를 생산하고 있다.

영광군, 출산친화 도시로 탈바꿈

영광군은 인구절벽위기에 대응하고 저출산 극복으로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건강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출산 가정에 출산 축하용품 지원 등 다양한 출산친화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조례를 개정하고 올 1월부터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임산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보호자 중 한 명이라도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 신고 시 읍·면사무소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로 신청하면 여기 탄생 축하기드와 함께 부스터스트, 기저귀 기방용 백팩,

적외선 체온계, 속싸개 및 내의 등 3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을 전달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영광군은 저출산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출산 지원 중장기 계획’, ‘청년발전 계획’ 등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영광’이미지를 넓고 기르기 좋은 영광을 위한 사회적 기반 확대를 위해 전 행정력을 모아왔으며, 청년 성크 텁크 운영으로 각종 정책 제안을 통해 청년고용확대와 정착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 장려금지원, 청년 희망 플러스통장, 기업승계 청년 지원 및 귀농·귀촌 청년 영농정착 등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출산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공공시설 임산부 전용 주차장과 모유 수유실 설치, 분만 신부인과 설치 운영,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영양사업, 정관·난관복원 수술비 지원, 예비부부 건강검진지원과 임산부에게 염산제 및 철분제 지원, 산전 초음파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행복한 출산 임신부 교실운영 등 다양핚 프로그램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 차별화된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발굴로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영광=서희원 기자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구례군, 휴가철 청결 공중화장실 관리에 행정력 집중

깨끗한 이미지 제고 관광객 유치

구례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청결한 구례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휴가철 공중화장실 관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동청소반과 점검반을 운영하여 화장실 이용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대청소 실시와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며, 또한 이

용객의 편의를 위해 청결담당자 실명제 안내표지판과 청결상태점검표를 비치하여 누구나 불편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해 1천2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불법촬영 단속기마다 탑재기를 구입하고 암살비상벨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휴가철 이용객이 많은 지

리산 피아골·문수리 계곡과 간진

용지동 계곡, 산동 수락폭포 등에 환경관리원을 추가로 7명을 집중 배치하고, 환경미화단장 등 특별 점검반을 운영해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편의시설의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화장실은 구례군의 얼굴이라는 시각감으로 청결한 화장실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함평군, 폭염피해예방 그늘막 설치

주요 교차로·횡단보도 등 관내 12곳

광주·전남지역에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함평군은 지난 23일 보행자들이 폭염을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막 텐트를 지역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관내 12곳에 설치했다.

군은 지난해 시범 실시했던 그늘막 설치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

평을 얻어 올해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그늘막 텐트가 지역주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작은 도움이리도록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 지역에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 19일부터 도



로 복사열로 인한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9개 읍·면 시가지 도로에 살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신안군, 벼 병해충 적기

방제로 고품질 쌀 생산

방제협의회 개최

신안군은 벼 생육기기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벼이삭도열병 및 벼멸구, 벽노린재 등 주요 병해충 적기방제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병해충 방제 협의회는 지난 7월 17일(화)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군과 유관기관 관계자, 그리고 농업인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벼 안전생산을 위한 방제대상 병해충과 방제적기 및 대책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병해충 발생 상황 및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민생종 벼 출수기를 판단하였으며, 방제적기는 8월 06일부터 8월 16일까지 벼 병해충 종별 방제기간으로 정하고 동시방제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벼의 이삭이 나오는 출수기 전후에 병해충 피해를 받을 경우 벼의 품질 하락 및 수량 감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별 방제기간에 적용약제를 이용하여 동시방제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유관기관 MOU

보성군은 지난 24일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질환 유병률은 25.4%로 국민 4명 중 1명이 경험하는 흔한 질환이다.

이에 맞춰 군은 유관기관 MOU를 체결하여 군민들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약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안전망을 설계하여 주민복지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 함께한 기관은 의료·장애인·청소년·노인분야 등 총 16

개 기관으로 보성지역 정신건강 침이로서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 편견해소,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연계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군은 지난해 8월 3일부터 보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연우)를 의료법인 삼호의료재단 별교산 호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서·소방서·교육지원청과도 올해 상반기애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연우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치료, 연계를 통해 군민의 정신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전문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사무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부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명약사용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전경 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민사권리방안 안내